

국어국문학과를 진학한 후
문학을 향한 열정을 펼쳐나가고 있는
유 동문을 만나 조선일보
신춘문에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물었다.



우리학교 캠퍼스의 장애인 시설 및 설비 현황의 현주소를 검토해봤다.

대학주보



지난해 국제 캠퍼스는 몰려든 외부차량으로 정체 현상을 빚어 광역버스가 나가는 데 1시간 이상이 소요됐다.

(사진=대학주보 DB)

챗GPT 교수법 특강

정다연 기자 ekdusgood@khu.ac.kr

교수학습지원센터가 ‘챗GPT’ 건전하게 사용하기라는 주제로 교수법 특강을 지난 20일 마련했다. 특강은 12시부터 13시까지 화상으로 진행됐으며 ▲교수진의 디지털 역량 함양 및 수업활용도 제고 ▲디지털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의 변화 방향성 모색을 목적으로 했다.

이번 특강은 에세이핏에이아이 김광일 대표가 담당했다. 해당 강의에서는 챗GPT의 개발원리와 활용 방법이 설명됐다. 주요 강의 내용은 ▲챗GPT 이해하기 ▲챗GPT 용도 및 규제 ▲챗GPT 교육적 목적 ▲GPT Detector ▲Plagiarism checker 개발 사례공유 ▲대학에서 활용 방법이었다. 아울러 챗GPT 이해와 사용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세미나에서 활용방안 및 제약사항에 대해 심층 논의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교수학습지원센터에 따르면 해당 특강은 우리학교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했으며 311명이 신청해 193명이 이수했다. 이수 현황은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야 집계되며 만족도 조사는 오는 31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해당 특강에 참여한 교원들은 “개념을 이해하게 되는 좋은 기회였다”며 “보다 실제적인 접근을 위해 사례 중심으로 배울 수 있다면 좋겠다”는 의견을 남겼다.

이번 교수법 특강은 ‘디지털 트렌드’ 세미나의 일부로 진행됐다. ‘디지털 트렌드’ 세미나는 추후 오프라인 교수 세미나로 연계돼 진행된다. 교수 세미나는 오는 4월 21일과 28일에 각각 국제캠퍼스와 서울캠퍼스에서 열린다. e-Campus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인공지능 기술과 미래 교육 ▲챗GPT 활용사례 및 적용 방안 논의 ▲대학에서의 활용 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활짝 핀 벚꽃, 상춘객 대비할 상세 대책은 아직

이동건 기자 ehdrjs3589@khu.ac.kr

캠퍼스에 벚꽃이 만발하다. 우리 학교 양 캠퍼스(양캠퍼)가 벚꽃 구경의 명소로 꼽히는 만큼 캠퍼스 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작년 국제캠퍼스(국제캠)는 봄꽃을 즐기려는 상춘객으로 혼란을 겪은 바 있다. 당시 국제캠은 수많은 외부인으로 북적였다. 총무관리처는 학생회관, 중앙도서관 등 건물 입구에 외부인 출입을 금한다는 공고문을 부착했지만, 외부인이 무단으로 들어오는 경우를 일일이 막아설 수는 없었다.

출입이 통제된 교내 건물에 외부인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상황도 목격됐다. 당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건물에 잠금장치가 적용돼 있었지만, 일부 외부인은 잠금장치가 작동하지 않도록 문을 고정해두고 출입했으며 반려견과 함께 출입하는 경우도 있었다.

교내 쓰레기도 대폭 늘어났다. 사색의 광장에 놓인 쓰레기통은

안은 물론이고 주변 역시 쓰레기가 넘친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 교내 건물에 있는 쓰레기통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음료가 담긴 컵과 음식물쓰레기가 포함된 일반쓰레기 등이 그대로 버려져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환경미화원 A 씨는 “평소에 한 봉지가 나오던 구역에서 10봉지 이상이 나왔다”며 “학교 측이 주말에도 지속적으로 환경미화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의견을 표했다.

더욱 문제가 됐던 것은 교내외 도로 상황이었다. 국제캠은 정문에서 나가는 길이 2개 차로에 불과해 한 번에 많은 차량이 몰릴 경우 교내 도로가 마비되는 구조다. 이러한 탓에 지난해는 4월 11일과 12일에 걸쳐 차량 대기행렬이 정문에서 전자정보대학관까지 이어졌다. 약 1.2km에 이르는 교내 도로가 외부 차량으로 가득 차 정체현상이 빚어진 것이다. 이 같은 차량행렬은 해가 질 때까지 계속됐다. 불법주차 문제도 발생했다. ▲학

생회관으로 들어가는 일방통행 도로 ▲체육대학관으로 올라가는 언덕 모퉁이 ▲사색의 광장 앞 도로 ▲예술디자인대학관 앞 도로 등에 차량이 주차됐다.

교내 도로가 마비되는 탓에 사색의 광장에서 출발하는 광역버스의 배차간격도 무너졌다. 사색의 광장에서 캠퍼스 밖으로 나가까 지 꼬박 한두 시간이 걸렸고, 배차시간 개념 자체는 사라졌다. 이로 인해 캠퍼스 인근뿐만 아니라 버스 이용객 모두가 불편을 겪었다. 광역버스 기사 A 씨는 “캠퍼스 안에서는 차가 아예 안 움직일 정도였다”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고, “학교 측의 출차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캠퍼스(서울캠) 역시 매년 몰려드는 상춘객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매년 이 시기 서울캠의 정문부터 본관 앞까지는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즐비하며 쓰레기 문제 역시 고질적이다. 더욱이 캠퍼스 내 벚꽃은 이미 개화했으며 4월 8일에는 외부인에 캠퍼스를 개

방하는 오픈 캠퍼스 형태의 벚꽃 축제가 개최되는 만큼, 혼란을 방지할 대책은 필수다.

양캠 총무관리처는 여러 대안을 논의 중이다. 우선 국제캠 총무관리처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팀별로 맡아 관리하기로 했다. 외부인 출입은 안전팀, 쓰레기 처리는 관리팀, 차량 통제는 총무팀에서 분담할 예정이다. 국제캠 총무관리처는 “평일에는 외부인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며 “4월 8일부터 상춘객이 몰릴 걸로 예상되기에 그에 맞춰 대응을 계획 중이다”라고 밝혔다.

서울캠 총무관리처 역시 여러 대안을 논의 중이나, 결정된 상세 대안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총무관리처는 “다음주부터 벚꽃 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 구체적인 계획을 짤 계획이고 총무팀, 관리팀, 학생지원센터, 캠퍼스가 다 같이 모여 브리핑과 회의를 할 것”이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사결정을 한 후 구성원들에게 안내가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